

국립국어연구원 소식

1. 국립국어연구원 청사 신축 이전 및 준공식 개최

가. 청사 이전

○ 국립국어연구원이 자체 청사를 마련하여 이사하였다. 그동안 구 덕성여대 별관, 구 국악고등학교 교사, 덕수궁 석조전 서관 등을 임대하여 사용하여 오던 중 이번 방화동 청사 준공으로 부족한 연구 공간을 해소하게 되었다. 대지 1,000평, 연건평 4,502평,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인 신축 청사는 최신 시설의 대강당, 소회의실, 음성분석실 등을 갖추고 있다. 국립국어연구원 청사에는 문화정책개발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가 함께 입주하였다.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방화3동 827번지 (우편번호 : 157-857)
- 전화 : 6699-711 ~ 6699-780 (빠진 번호도 있음)
- 전송 : 6699-777

나. 준공식 개최

○ 우리나라 어문 정책 전반에 관련된 연구를 주관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국어연구원이 개원 이래 처음으로 자체 청사를 건립하였다. 2000년 9월 8일 오전 10시 문화관광부 박지원 장관과 각 입주 기관 초청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화동 청사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진행은 ①청사준공식 테이프 커팅 ②세종대왕 동상 제막식 ③준공식 유공자 표창순으로 진행하였다.

○ 이 날 준공식에 참석한 박지원 장관은 우리 원의 숙원 사업이던 청사의 완공으로 부족한 연구 공간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게 되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말과 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약속하였다.

2.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고시

문화관광부는 2000년 7월 7일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0-8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고시하였다.

국립국어연구원의 심재기 원장은 김광해, 김세중 부장과 함께 2000년 7월 7일에 개정된 로마자 표기법을 국민에 널리 소개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펼쳤다. 다수의 라디오 방송과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하고 신문에 글을 기고하는 등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였다.

가. 심재기 원장 언론 홍보 활동

- 2000년 7월 5일 (수) 10:20 KBS 라디오 국제방송 전화 인터뷰
〈개정된 로마자 표기법 해설 및 홍보〉
- 2000년 7월 6일 (목) 9:10 부산 교통방송 전화 인터뷰 〈개정된 로마자 표기법 홍보〉
- 2000년 7월 10일 (월) 10:00 교통방송 인터뷰 〈개정된 로마자 표기

법 홍보>

- 2000년 7월 11일 (화) 17:30 YTN 인터뷰 <개정된 로마자 표기법 홍보>
- 2000년 7월 18일 (화) KTV 인터뷰, 문화마당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홍보>
- 2000년 7월 26일 (수) 14:00 아리랑 TV 인터뷰 <개정된 로마자 표기법 홍보>
- 2000년 8월 28일 (월) 17:00 KBS 라디오 인터뷰 <개정된 로마자 표기법 홍보>
- 2000년 8월 29일 (화) 11:00 SBS 라디오 인터뷰 <개정된 로마자 표기법 홍보>
- 2000년 9월 15일 (금) 조선일보 6면 <새 로마자 표기법은 ‘最善’> 게재

나. 김광해 어문규범연구부장 홍보 활동

- 2000. 7. 21. (금) 문화일보 게재 <로마자 표기법 개정안이 옳다>
- 2000. 8. 3. (목) 문화일보 게재 <새 로마자 표기법이 최선의 대안>

다. 김세중 어문자료연구부장 홍보 활동

- 2000. 7. 10. (월) 교통방송 인터뷰, 교통시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홍보>
- 2000. 7. 14. (금) KTV 특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홍보>
- 2000. 7. 19. (토) 한국일보 게재 <왜곡된 표기법 방치 부끄럽게 생각해야>
- 2000. 7. 24. (월) 청주방송 인터뷰, 정보광장 <국어의 로마자 표기

법 홍보>

- 2000. 7. 28. (금) 한국경제신문 게재, 오피니언란 <새 로마자 표기법이 斥和?>
- 2000. 8. 15. (화) EBS 라디오 출연, 이브닝잉글리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홍보>

라. 개정된 로마자 표기법 전문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0-8호>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의로마자표기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0년 7월 7일

문화관광부장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제2장 표기 일람

제1항 모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1. 단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a	eo	o	u	eu	i	ae	e	oe	wi

2. 이중 모음

ㅑ	ㅓ	ㅕ	ㅠ	ㅗ	ㅛ	ㅜ	ㅠ	ㅡ	ㅣ
ya	yeo	yo	yu	yae	ye	wa	wae	wo	we

[붙임 1] ‘ㅑ’는 ‘ㅣ’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는다.

(보기)

광희문 Gwanghuimun

[붙임 2] 장모음의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

제2항 자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1. 파열음

ㄱ	ㄲ	ㅋ	ㄷ	ㄸ	ㅌ	ㄴ	ㅅ	ㅆ
g, k	kk	k	d, t	tt	t	b, p	pp	p

2. 파찰음

ㅈ	ㅉ	ㅊ
j	jj	ch

3. 마찰음

ㅅ	ㅆ	ㅎ
s	ss	h

4. 비음

ㄴ	ㅁ	ㅇ
n	m	ng

5. 유음

ㄹ
r, l

[붙임 1]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안의 발음에 따라 표기함.)

(보기)

구미 Gumi	영동 Yeongdong	백암 Baegam
옥천 Okcheon	합덕 Hapdeok	호법 Hobeop
월곶[월곶] Wolgot	벚꽃[벚꽃] beotkkot	
한밭[한밭] Hanbat		

[붙임 2]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로 적는다.

(보기)

구리 Guri	설악 Seorak	칠곡 Chilgok
임실 Imsil	울릉 Ulleung	
대관령〔대팔령〕 Daegwallyeong		

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

제1항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1.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보기)

백마〔백마〕 Baengma	신문로〔신문노〕 Sinmunno
종로〔종노〕 Jongno	왕십리〔왕십니〕 Wangsimni
별내〔별래〕 Byeollae	신라〔실라〕 Silla

2. ‘ㄴ, ㄹ’이 덧나는 경우

(보기)

학여울〔항녀울〕 Hangnyeoul	알약〔알략〕 allyak
---------------------	---------------

3. 구개음화가 되는 경우

(보기)

해돋이〔해도지〕 haedoji	같이〔가치〕 gachi
맞히다〔마치다〕 machida	

4.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소리나는 경우

(보기)

종고[조코] joko

놓다[노타] nota

잡혀[자펴] japyeo

낱지[나치] nachi

다만,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보기)

목호 Mukho

집현전 Jiphyeonjeon

[붙임]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

압구정 Apgujeong

낙동강 Nakdonggang

죽변 Jukbyeon

낙성대 Nakseongdae

합정 Hapjeong

팔당 Paldang

샛별 saetbyeol

울산 Ulsan

제2항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보기)

중앙 Jung-ang

반구대 Ban-gudae

세운 Se-un

해운대 Hae-undae

제3항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보기)

부산 Busan

세종 Sejong

제4항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 안의 표기를 허용함.)

(보기) 민용하 Min Yongha (Min Yong-ha)
송나리 Song Nari (Song Na-ri)

(1)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 한복남 Han Boknam (Han Bok-nam)
홍빛나 Hong Bitna (Hong Bit-na)

(2)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

제5항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

충청북도 Chungcheongbuk-do	제주도 Jeju-do
의정부시 Uijeongbu-si	양주군 Yangju-gun
도봉구 Dobong-gu	신창읍 Sinchang-eup
삼죽면 Samjuk-myeon	인왕리 Inwang-ri
당산동 Dangsang-dong	봉천 1동 Bongcheon 1(il)-dong
종로 2가 Jongno 2(i)-ga	퇴계로 3가 Toegyero 3(sam)-ga

[붙임] ‘시, 군, 읍’의 행정 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

(보기)

청주시 Cheongju

함평군 Hampyeong

순창읍 Sunchang

제6항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보기)

남산 Namsan

속리산 Songnisan

금강 Geumgang

독도 Dokdo

경복궁 Gyeongbokgung

무량수전 Muryangsujeon

연화교 Yeonhwagyo

극락전 Geungnakjeon

안압지 Anapji

남한산성 Namhansanseong

화랑대 Hwarangdae

불국사 Bulguksa

현충사 Hyeonchungsa

독립문 Dongnimmun

오죽헌 Ojukheon

축석루 Chokseongnu

종묘 Jongmyo

다보탑 Dabotap

제7항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

제8항 학술 연구 논문 등 특수 분야에서 한글 복원을 전제로 표기할 경우에는 한글 표기를 대상으로 적는다. 이 때 글자 대응은 제2장을 따르되 ‘ㄱ, ㄷ, ㅂ, ㄴ’은 ‘g, d, b, l’로만 적는다. 음가 없는 ‘ㅇ’은 붙임표(-)로 표기하되 어두에서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분절의 필요가 있을 때에도 붙임표(-)를 쓴다.

(보기)

집

jib

짚

jip

뱍

bakk

값

gabs

붓꽃	buskkoch	먹는	meogneun
독립	doglib	문리	munli
물엿	mul-yeos	굳이	gud-i
종다	johda	가곡	gagog
조랑말	jolangmal	없었습니다	eobs-eoss-seubnida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표지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표기법 시행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설치된 표지판(도로, 광고물, 문화재 등의 안내판)은 2005. 12. 31.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 ③ (출판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표기법 시행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발간된 교과서 등 출판물은 2002. 2. 28.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3. 제15차 IRG 회의 참석

1) 회의 개요

- ☐ 장소: 중국 쿤밍, Courtyard 호텔, 대회의장
- ☐ 기간: 2000년 6월 19~23일까지
- ☐ 참석국, 한국(4), 북한(4), 중국(7), 일본(5), 베트남(2) 미국(2)
- ☐ 한국측 참석 : 서경호(서울대), 이재훈(고려대),
권춘우(동양공업대), 이준석(국립국어연구원)

2) 회의 의제

- 가. Plane2의 배열 한자 Ext. C 제안
- 나. Extension B 검토 및 수정
- 다. 북한의 회원 자격 심의

3) 주요 결정 사항

가. 차기 회의 일정

- ㄱ) 제16차 회의는 2000년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열
- ㄴ) 제17차 회의는 2001년 6월 홍콩에서 열

나. 북한의 회원 자격

IRG는 북한의 회원 자격 요청을 받아들여 인정하였다.

다. 북한의 ISO 10646-1에 추가 칼럼 개설 요구

북한이 요구한, ISO/IEC 10646-1에 추가 칼럼을 개설하여 한자를 배열하는 문제는 SC2/WG2의 결정에 따른다.

4. 『세계 속의 조선어(한국어) 대비 연구』 국제 학술 회의 중국에서 열려

중국의 중앙 민족대학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세계 속의 조선어(한국어) 대비 연구》라는 주제의 국제 학술회의를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베이징에 소재한 올림픽 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회의는 사흘 동안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중국 내의 한국어 학자, 일본, 미

국, 독일의 언어학자, 국내의 저명한 국어학자 100여 명이 모여 한국어를 대상으로 순수 언어학, 비교 언어학, 응용 언어학의 세 부문에 걸친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특히 이번 학술 발표회에서는 북한의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소장인 문영호(文永鎬) 교수 등 북한 학자 4명이 참석하여 국립국어연구원의 심재기(沈在箕) 원장을 비롯한 국내 학자들과 민족어의 장래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회의 이틀째인 12일 오전 북한의 문영호 소장은 “조선어서사규범의 확립과 그의 통일적발전을 위한 몇가지 문제”라는 주제로 해방 이후 지금까지 북한에서 전개한 민족어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한자어를 몰아내고, 고유어 등으로 말을 다듬는 어문 정책을 언급하였고, 이어 최근에 바뀐 북한의 맞춤법과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법에 대해 소개하였다. 북한 맞춤법에서는 사이시옷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사잇소리 현상의 단어를 구별하기 위해 ‘새별/셋별’, ‘비비람/빗바람’ 등에서처럼 일부 단어에 사이시옷의 사용을 1998년부터 허용하게 되었다. 또, ‘암-, 수-’ 등의 접사가 붙는 단어는 ‘암컷’, ‘수컷’을 제외하고 모두 ‘암개미, 수개미, 암돼지, 수돼지, 암닭, 수닭’으로 표기하도록 새롭게 개정되었다. 띄어쓰기 역시 금년부터는 보조용언과 파생어 등의 일부를 띄어쓰도록 수정하였고, 1999년부터는 외국의 지명 표기 ‘아세아, 미주, 대양주, 구라과’를 ‘아시아, 아메리카주, 오세안주, 유럽’으로, ‘화란, 희랍, 예금, 인도, 독일’은 ‘네테를란드, 그리스, 예집트, 인디아, 도이첼란드’로 개정하였다.

회의 마지막 날인 13일 오전 국립국어연구원의 심재기 원장은 “‘하다’류 낱말의 생성기반에 대하여”라는 발표를 통해 모든 문화는 본래 외래적 요소가 무늬처럼 엮갈리고 섞이며 발전하는 속성을 지녔으므로 민족어 역시, 과거에는 한자 문화권 속에서 중국어를 외래적 요소로 받아들이며 발전하였으나 미래에는 영어와 다른 문화권의 언어들을 외래적 요소로 받아들여 발전할 것으로 전망함으로써 이른바 문문 문화설(文紋文化說)을 주장하였다.

국어 속에 스며있는 한자문화권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예로, 한자어와 고유어가 결합하여 단어를 이루는 ‘機틀, 本밑, 足발, 널板, 옷漆, 애肝腸’가

략指, 몸體 등의 어휘를 들 수 있고, 한자와 동사과생 접미사 ‘-하다’와 결합하는 한자어 어근들은 특히 이런 특성을 잘 보여주는 단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고유어인 줄 아는 단어 ‘말쑥하다’는 우리말 ‘맑-’에 한자어 ‘淑’이 결합하여 ‘맑淑하다’에서 ‘말쑥하다’로 변화한 것이다. 또, 국어에서 순수한 우리말로 알고 있는 ‘추녀’의 어원도 17세기 문헌 역어유해(譯語類解)에 의하면, ‘椽’의 중국음 ‘춘’과 고유어 ‘혀’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말이며, 두레박도 ‘鐵落’의 중국음 ‘트레’와 고유어 ‘박’이 결합된 말이므로 국어에는 중국어와 같은 한자문화권의 외래적 요소들이 고유어들과 함께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겠다.

종합 토론 시간에 북한의 문영호 소장은 민족어가 외래 문화적 요소를 기반으로 발전하였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발전할 것이라는 심재기 국립국어연구원장의 주장은 민족어의 미래를 위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하였으나, 발표자인 심재기 국립국어연구원장은 발표 내용이 국어 발전에 대한 학문적 고찰과 학자적 전망이고, 민족어가 외래적 요소 속에서 순수성을 지키며 아름다운 언어로 발전하기 위해서 규범성을 띤 국어 순화의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겠으나, 북측의 주장처럼 말다듬기만으로 국어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남과 북의 어문 학자들이 만나서 민족어의 장래를 위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토론의 자리를 만들자고 제안하였다.

이번 학술 회의는 순수 언어학, 비교 언어학, 응용 언어학의 세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참석한 북한 학자들은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협의하고 있는 한글과 한자의 표준 코드 체계를 남북 공동의 단일안으로 제안하는 데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5. 한중 한자 표준화 제4차 협의회

한자 표준화를 위한 한중 협의회는 95년 한국의 국립국어연구원과 중국의 국가어언문자공작위원회 어언문자응용연구소 사이에 교환된 기본 합의서에

따라 지금까지 3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금년에도 이번 북경에서 8월 14일-15일 이틀 동안 4차 회의가 열려서, 한중 한자 이체자전의 공동 편찬의 세부 계획과 구체 일정에 합의하였다.

참가자

가. 한국측

- 심재기 (남, 62. 국립국어연구원 원장)
- 정 광 (남, 59.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지원 부장)
- 이준석 (남, 38. 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사)

나. 중국측

- 통르촨 (남, 60. 국가어위 어언문자응용연구소 부소장)
- 장취안 (여, 55. 국가어위 어언문자응용연구소 주임 연구원)
- 장이칭 (남, 39. 국가어위 어언문자응용연구소 연구원)
- 왕 민 (여, 33. 국가어위 어언문자응용연구소 연구원)

6. 한국어 전문가 파견 및 동포 한국어 교사 초청 연수

우리 원은 중국 및 구 소련의 동포 밀집 지역에 한국어 전문가 11명을 1~2주간 파견하여 현지의 동포 한국어 교사들을 교육하고 또한 현지의 한국어 교사 14명을 서울로 초청하여 2주간 한국어 관련 연수를 실시하였다.

가. 한국어 전문가 파견

1) 파견 상황

파견 지역 및 기간	파견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2000.6.16. ~ 6.23.)	신현숙(상명대 교수) 김옥순(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2000.7.1. ~ 7.8.)	서종학(영남대 교수) 이승재(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사)
카자흐스탄 알마티 (2000.7.4. ~ 7.17.)	조항범(충북대 교수, 국립국어연구원 어문실태연구부장) 허철구(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관)
러시아 사할린 (2000.7.5. ~ 7.12.)	김광해(서울대 교수, 국립국어연구원 어문실태연구부장) 이준석(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사) 맹영재(문화관광부 국어정책과 행정사무관)
중국 요녕성 단둥 (2000.7.18. ~ 7.25.)	장소원(방송대 교수) 정희원(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관)

2) 파견 활동 내용

- 1~2주간 현지의 한국어 교사와 한국어 교육 및 보급 관련자들에게 한국어 어문 규범, 국어의 역사, 발음, 문법, 외래어, 언어 예절, 남북한의 언어 차이 등의 한국어 관련 사항과 한국 문학 및 문화 등을 강의함.
- 현지의 한국어 사용 실태 및 한국어 교육 현황 등을 파악함.

나. 동포 한국어 교사 초청 연수

1) 초청 지역 및 초청된 사람(5개국 14명)

- 중국 : 문종철(남, 요령성 단둥시 민족사무위원회 조선어문판공실)
한치민(남, 요령성 무순시 조선족 제일중학 조선어문 교사)
노귀자(여, 흑룡강성 민족간부학원 조선어문교사(부교수))
- 러시아 : 최 인나(여, 상트 페테르부르크대학 동양학부 한국어문학과 전임)
황은순(여, 사할린 크라스노고르스크시 제 2학교 한국어 교사)
이삼자(여, 사할린 노글리키시 21 김나지야 한국어 교사)
최 이리나(여, 우수리스크 3번학교 한국어 교사)
이 나제스타(여, 우수리스크사범대학 5학년, 공립학교 한글 교사)
이 잔나(여, 하바로프스크 동양상업대 한국어 강사)
이 라리사(여, 하바로프스크 188호 유치원 한국어 교사)
- 우즈베키스탄 : 이 류보비(여, 타슈켄트 제 59학교 한국어 교사)
이 스베틀라나(여, 타슈켄트 제 16학교 한국어 교사)
- 카자흐스탄 : 황 스베틀라나(여, 침켄트주 사리아가치 한글학교 교사)
- 키르기스스탄 : 최 리타(여, 까라발다 제 1학교 한국어 교사)

2) 연수 기간 : 2000년 8월 23일(수) ~ 9월 6일(수)

3) 연수 장소 : 북악 파크호텔(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소재)

4) 연수 내용 :

- 강의
- ㄱ. 우리말과 우리글 : 심재기(국립국어연구원 원장)

- ㄴ. 국어의 역사 : 조항범(국립국어연구원 어문실태연구부장)
- ㄷ. 국어의 어휘 : 김광해(국립국어연구원 어문규범연구부장)
- ㄹ. 국어 문법 1 : 박용찬(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사)
- ㅁ. 국어 문법 2 : 정희창(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사)
- ㅂ. 국어 문법 3 : 정호성(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사)
- ㅅ. 표준 발음법 : 최혜원(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사)
- ㅇ. 한국의 문학 : 조남현(서울대 교수)
- ㅈ. 서울말의 발음 : 이계진(KBS 아나운서)
- ㅊ. 한국어 어문 규정 : 정희원(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관)
- ㅋ. 언어 예절 : 허철구(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관)
- ㅌ. 국어의 외래어 : 김세중(국립국어연구원 어문자료연구부장)
- 현장 학습 : 안산초등학교(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2~4학년 수업
 참관 및 학교 시설 견학, 교장·교감과 토론
 청주 충북대학교 국제교육센터 및 교육 시설, 박물관
 등 견학
- 산업 연수 및 문화재 답사 : 천안 독립기념관, 청주 고인쇄박물관,
 울산 현대자동차 견학 및 서울 남산,
 창덕궁, 경주 일원 답사

7. 국어문화학교, 방화동 새 청사에서 열린다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국어문화학교가 방화동 신청사에서 7월과 8월에 총 59명의 중고등학교 국어과 교사를 대상으로 각각 열흘 간씩 열렸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에는 서울·경기 지역뿐만 아니라 광주(光州), 부산, 제주 등지에서도 고루 참여하여 국어문화학교에 전국적인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7월과 8월의 교사반은 직무연수의 성격으로 각각 60시간의 과정을 이수하였다.

국어반은 9월 18일부터 23일까지,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두 번 열렸고, 117명, 146명이 각각 참여하였다.

8. ‘국어 정보 보급 관리 시스템’ 시연회 개최 및 국립국어연구원 홈페이지 변경

- 국립국어연구원은 2000년 8월 18일(금) 15:00시부터 17:00시까지 국립국어연구원 강당(강서구 방화동 소재)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옛글자를 포함한 다양한 국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국어 정보 보급 관리 시스템’의 시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시연회에서는 ‘국어 정보 보급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검색할 수 있는 국어 정보의 내용과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어정보화 사업의 내용이 소개되었다.
- 이번 시연회는 지난 1999년 7월부터 12월까지 국립국어연구원에서 개발한 ‘국어 정보 보급 관리 시스템’을 새로운 국립국어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orean.go.kr>)를 통하여 일반에 공개하기 위한 행사였다. 국립국어연구원은 지난 1999년 7월부터 정보통신부와 한국전산원의 지원을 받는 정보화 지원사업으로 ‘국어 정보 보급 관리 시스템’의 개발에 착수하여 1999년 12월에 작업을 마무리했다. 프로그램 개발은 (주)대우정보시스템에서 맡았고 시스템의 개발 방향과 국어 자료에 관한 정리, 가공, 검토 작업은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진행하였다. 개발이 끝난 후 7개월 동안의 시험과 준비 기간을 거쳐 시연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시연회가 끝나고 난 다음 주인 8월 21일부터 이 시스템은 국립국어연구원의 변경된 홈페이지(<http://www.korean.go.kr>)를 통하여 곧바로 외부 서비스에 들어갔다.
- 이번에 공개한 ‘국어 정보 보급 관리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인터넷에

서 옛글자와 확장 한자를 처리하기 위하여 유니코드 체계를 채택했다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지원하는 한글과 한자는 KSC-5601 규격을 따르고 있어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옛글자나 확장 한자를 입력하고 검색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다양한 국어 연구 자료를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자들을 입력하고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이의 해결을 위하여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2000과 한글 워디안(출시 예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니코드 확장 규격을 채택하여 인터넷에서도 문서편집기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문자를 입력하고 검색할 수 있게 하였다. 유니코드 확장 규격을 지원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2000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도 곧바로 ‘국어 정보 보급 관리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사용자는 홈페이지에서 확장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국어 정보 보급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니코드를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한글 윈도 98이나 윈도 NT 이상의 운영체제를 사용해야 한다. 윈도 95를 사용할 경우 확장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둘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옛한글 입력 기능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5.0 이상을 사용해야 하며 넷스케이프를 사용할 경우 정상적으로 화면이 나오지 않는다.

셋째,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2000에서 지원하는 옛한글 글꼴이 있어야 하며 옛한글 입력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

결론적으로 한글 윈도 98을 사용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2000이

나 워드 2000이 설치되어 있는 사용자는 별도의 조치없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5.0 이상을 사용하여 ‘국어 정보 보급 관리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 ‘국어 정보 보급 관리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보고서로 발간하였거나 전산 자료로 축적하였던 자료로 그동안 제한된 부수의 보고서로 발간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제공하던 정보들이다.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알고 싶어요’에서는 가나다 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어생활에 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던 질문과 답을 정리하여 등록하였다. ‘자주 나오는 질문’과 ‘질의응답 자료집’ 메뉴에서 원하는 단어를 입력하면 해당 내용을 검색할 수 있다. 그리고 국어생활에 관련된 온라인 질의응답은 ‘묻고 답하기’라는 이름으로 서비스한다.

둘째, 어문규정(한글맞춤법, 표준어,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관련된 규정과 해설, 그리고 용례들을 검색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2000년 7월 초에 새롭게 고시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규정과 그에 대한 행정 구역, 자연 지명, 교통 관련 지명, 문화재 및 명소, 역사 지명의 해당 용례를 검색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국어 순화 자료와 신어(사전에 없는 말) 자료도 단어별로 검색할 수 있다.

셋째, 국어사전에 관련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특히 1999년 말에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만든 표준국어대사전의 내용을 모두 검색할 수 있으나 실제적인 서비스는 10월 이후에 개시할 예정이다.

넷째, 국립국어연구원에서 간행한 새국어소식, 새국어생활, 국어학연감 등의 간행물의 내용을 검색할 수 있고 국어 생활에 관련된 신문기사의 내용을 검색하여 열람할 수 있다.

다섯째,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 목록을 검색하여 원하는 국어 자료의 소장 유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여섯째, 표준국어대사전의 용례에 자주 쓰였던 문헌들을 정리하여 단어 별로 문장을 검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하는 단어에 대한 적절한 용례 자료를 인터넷상에서 즉시 검색할 수 있게 하였다.

일곱째, 모르는 단어를 입력하면 그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검색하여 주는 통합검색 기능을 두어 해당 정보를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하였다.

- 국립국어연구원은 8월 21일 이전까지 “21세기 세종계획”의 홈페이지와 함께 사용하던 기존의 홈페이지(<http://www.sejong.or.kr>)는 “21세기 세종계획”을 위한 독립된 홈페이지로 남겨 두고 국립국어연구원 홈페이지는 주소(<http://www.korean.go.kr>)를 새롭게 변경하여 검색 시스템과 함께 홈페이지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9. 국어연구원 보고서 발간

가. 『북한 주민이 모르는 남한 어휘』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남한의 방송, 신문, 잡지, 일상 대화에서 북한 주민이 모르는 말, 3,600단어를 모아 뜻풀이하여 사전식으로 정리한 『북한 주민이 모르는 남한 어휘』(2000.7.31. 발행)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탈북하여 남한에 정착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말 교육의 중요 자료가 될 뿐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쓰고 있는 생생한 생활 언어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서기 2000년 현재의 우리말 어휘의 특징을 조감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나.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백서 및 지침 발간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작년에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의 편찬 경과를 기록한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백서』(2000. 8. 31. 발행)와 사전을 편찬할 때 활용한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I II』(2000. 8. 31. 발행)를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책으로 발간하였으며, 관련 파일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백서』에서는 편찬 일지, 기구 편성, 예산, 작업자 명단 등에 관해 상세히 밝혔다.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I』에는 표제어, 원어, 발음·활용, 띄어쓰기에 관한 지침을,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II』에는 뜻풀이, 용례, 관련 어휘, 어원, 관용구·속담에 관한 지침을 수록하였다.

10. 언론(신문)의 외래어·외국어 사용 실태 개선

국립국어연구원에서 그동안(2000. 5. 12.~9. 14.) 언론에 홍보한 순화안들은 다음과 같다.

<제49호> (2000. 5. 12.)

- ◇ 피크 타임(peak time) → ① 절정기 ② 한창(때)
[용례] 대형 극장 메가박스가 아직 문을 열지 않았는데도 초저녁 피크 타임에 자리가 없을 정도다.
- ◇ 네거티브 전략(negative 戰略) → 부정적 전략
[용례] 네거티브 전략의 유행은 충격적 요소를 제공해야만 소비자의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 ◇ 니치 마켓(niche market) → 틈새 시장
[용례] 미쓰비시는 모터쇼를 계기로 니치 마켓 전법으로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 딜러십(dealership) → 판매권

[용례] 딜리실이 없는 인터넷 판매상을 통해 차를 살 경우 해당 영업소나 본사에 반드시 정식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리퀘스트(request) → ① 신청 ② 요청

[용례] 그동안 방송됐던 특집 중 가장 많은 리퀘스트를 받은 뮤직 비디오만을 모아서….

◇ 다운타운(downtown) → ① 중심가 ② 변화가

[용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LA 다운타운에서 뛰쳐나와 21세기를 맞는 엄청난 모브 신 등으로 영화광들에게 논란거리를 제공….

◇ 모브 신(mob scene) → 군중 장면

[용례] 위 용례 참조

◇ 배너 광고(banner 廣告) → 막대 광고

[용례]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 직사각형 모양의 기다란 배너 광고를 볼 수 있다.

◇ 싱크 탱크(think tank) → 두뇌 집단

[용례] 푸틴의 싱크 탱크인 전략 발전 연구소 팀이 상주해 있는 ‘알렉산드르 하우스’

◇ 업데이트(update) → 갱신

[용례] 약 85%의 응답자들은 뉴스 업데이트가 신속한 사이트를 자주 보게 된다고….

<제50호> (2000. 5. 23.)

◇ 커트라인(cut line) → ① 한계선 ② 합격선

[용례] 최근 집에 초고속 통신망을 깔았으니 지수가 조금은 올라갔을 테지만 여전히 커트라인에는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컨설팅(consulting) → ① 자문(諮問)

② 상담(相談)

[용례] 현대가 베이징에서 중국 진출 한국 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보육 센터 운영 및 종합 정보 기술 컨설팅 사업에 나섰다.

◇ 톱 브랜드(top brand) → 유명 상표

[용례] 숙녀 톱 브랜드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

◇ 퓨전(fusion) → ① 융합 ② 혼합 ③ 뒤섞기

[용례] 퓨전은 새로운 예술인가? ‘그렇다’는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그 시도만큼은 새롭다.

<제51호> (2000. 5. 30.)

◇ 라운드(round) → 회전(回戰)

[용례] 전자 지불 표준 경쟁 ‘2라운드’

◇ 모바일 오피스(mobile office) → 이동 사무실

[용례] 달리는 차 속에서 AV 시스템을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 원격 비즈니스가 가능한 모바일 오피스 시스템이 국내 처음으로 개발됐다.

◇ 붐 boom) → ① 대유행 ② (대)성황

[용례] 인력 공급 헤드 헌팅 아웃소싱 업체 대전·충남북 지역 진출 ‘붐’

◇ 비즈니스맨(business man) → ① 실업가 ② 사업가

③ 직장인 ④ 기업인

[용례] 이에 따라 잦은 출장과 이동으로 일분일초가 아쉬운 비즈니스맨들의 업무 추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아웃소싱 업체(outsourcing 業體) → 외주 업체(外注業體)

[용례] 대전·충남북 지역에 벤처 창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 아웃소싱 업체들의 진출이 잇따르고 있다.

◇ 토털 서비스(total service) → 종합 서비스

[용례] e비즈 정보 토털 서비스…한국 IBM(대표 신재철)은 22일 한국 IBM 홈페이지 내에 중소기업 전용 센터를 개설하고 국내 중소기업이 e비즈니스를 쉽게 실현할 수 있도록 e비즈니스를 위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52호> (2000. 6. 5.)

- ◇ 리더십(leadership) → ① 지도력 ② 통솔력
 [용례] 비주류들이 공통적으로 문제 삼는 대목은 바로 李 총재의 리더십
 ◇ 오디션(audition) → ① 심사(審査) ② 검사(檢査)
 ③ 실연 검사(實演檢査)
 ④ 실연 심사(實演審査)

[용례] 미래의 스타를 꿈꾸는 네티즌이 인터넷 오디션으로 몰리고 있다.

- ◇ 제스처(gesture) → 몸짓
 [용례] 이런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유화 제스처는 현대에 일단 월말까지 시간을 더 주되, 현대가 끝내 시장의 기대를 저버릴 경우 압박 수위가 훨씬 강해질 것이란 암시로 보인다.

- ◇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 → (선전) 구호
 [용례] 孫 후보는 아예 ‘열린 정당, 열린 리더십’을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李 총재의 리더십이 폐쇄적임을 빗댄 것이다.

- ◇ 타겟(target) → ① 목표 ② 중심 ③ 표적
 [용례] 비주류 후보들은 李 총재의 정치력도 타겟으로 삼는다.

<제53호> (2000. 6. 14.)

- ◇ 가이드북(guidebook) → ① 안내서 ② 안내 책자
 [용례] ‘재활용 알뜰 상점 가이드북’을 펼쳐 보니…
 ◇ 액세서리(accessory) → ① 장식품 ② 노리개 ③ 치렛감
 ④ 장신구 ⑤ 장식품

[용례] 을지로 6가 국립 의료원 옆의 훈련원 공원에서는 매월 첫째, 셋째 주 일요일 동대문 N세대 벼룩시장(02-3433-7115)이 열린다. 16~23세가 쓰거나 만든 옷, 신발, 가방, 액세서리 등을 취급한다.

- ◇ 인테리어(interior) → 실내 장식
 [용례] 중구 청계천 7, 8가의 황학동 벼룩시장은 시장 규모나 상품의 구색 면에서 대표적인 중고 시장. 골동품부터 인테리어 소품까지 온갖 품목이 나와 있다.

- ◇ 체크(check) → ① 점검 ② 대조

[용례] 김미현은 그동안 뉴욕의 한의원에서 침을 맞으며 통원 치료를 해 왔고, 뉴저지의 한 병원에서 자기 공명 촬영(MRI) 체크 결과 뼈나 근육에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아 현재 부상은 완쾌된 상태라는 것.

<제54호> (2000. 6. 21.)

◇ 세일즈맨(salesman) → ① 외판원 ② 판매원 ③ 영업 사원

[용례] 디지털 시대 세일즈맨 살아남기—전통적 세일즈맨이 위기를 맞고 있다. 공황도 아니고 환란도 아니다. 세일즈맨의 발목을 잡은 복병은 디지털이다.

◇ 커플(couple) → ① 쌍 ② 짝 ③ 부부

[용례] 어려운 커플, 잉꼬 노인 부부, 미혼 커플 모의 결혼 등을 목표로 공연 기간 중 10쌍의 결혼식을 올린다.

◇ 프리랜서(freelancer) → ① 비전속(인)
② 자유 계약자/활동가/기고가

[용례] 국립 극단 8년 만에 탈퇴—극단 찾아 나서는 프리랜서

◇ 호러 무비(horror movie) → 공포 영화

[용례] 21명의 아들을 전쟁터에 바친 로마의 영웅 앤드러니커스 장군을 둘러싼 권력 투쟁을 그렸다. 사지 절단, 허 절단마저도 성에 안 차, 원수의 아들을 죽여 파이로 굽는다. 호러 무비 뽐치는 극적 상상력이다.

<제55호> (2000. 6. 28.)

◇ 드라이버 라이선스(driver's license) → 운전 면허(증)

[용례] 권성현 씨는 지난 96년 운전 면허를 딴 뒤에 운전을 거의 하지 않다가 올해 초 변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 당차게 카 레이싱 드라이버 라이선스를 취득, 요즘 운전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 카 레이싱(car racing) → 자동차 경주

[용례] 위 용례 참조

◇ 레이싱 카(racing car) → ① 경주차(競走車)

② 경주용 자동차

[용례] **레이싱 카**의 거친 배기음에 귀가 멍해지지만, 순식간에 돌아 나가는 헤어핀 코스에서의 코너링 질주는 말할 수 없이 짜릿해요.

◇ 스쿨 존(school zone) → 어린이 보호 구역

[용례] 정부는 지난 95년 9월부터 통학로 상의 어린이 교통 안전 대책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반경 300m 이내 지점의 통학로 상에 보·차도 경계 턱을 설치해 차량 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하고, 불법 주·정차와 노상 주차장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른바 '**스쿨 존**'이다.

◇ 웨이트 트레이닝(weight training) → 근력 (강화) 훈련

[용례] **웨이트 트레이닝**과 함께 순발력을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듣고 자동차 경주 전자 게임을 하면서 감각을 키워 나가고 있어요.

<제56호> (2000. 7. 5.)

◇ 딜레마(dilemma) → ① 궁지(窮地) ② 진퇴양난

[용례] 현지 언론과 소식통들은 클린턴이 안고 있는 이런 고민들이 레이건이 실패한 것과 같은 길을 되풀이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포르투갈의 한 신문은 클린턴의 **딜레마**를 레이건의 스타워즈에 비유하면서, “새 미사일 방위 체제가 유럽은 물론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논리를 전달하는 데 클린턴이 전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스포트라이트(spotlight) → ① 각광 ② 주시 ③ 주목

[용례] 1월 21일 '외국인 행장'이라는 수식어 탓에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취임했지만 그동안 '선진 금융 기법을 도입한다더니 별 것 없다'는 비아냥을 받아온 것이 사실.

◇ 와인(wine) → 포도주

[용례] 김정일 국방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남측 인사들에게 '원샷을 제외한 술은 **와인**이었다.

◇ 커닝(cunning) → 부정 행위

[용례] 교사·학생 짜고 학력고사 '**커닝**'

◇ 컨디션(condition) → ① 조건 ② 상태 ③ 기분
 [용례] 자신의 말대로 6월의 문턱을 넘자마자 공동 선두에 나서는 시즌 최상의 컨디션을 발휘하며 목마른 첫 승의 불빛을 밝혔다.

◇ 화이트 와인(white wine) → 백포도주
 [용례] 김 국방 위원장은 알코올 도수 12도 안팎인 화이트와인을 본인 제의대로 '원샷'으로 한 번에 다 마셨으며...

<제57호> (2000. 7. 12.)

◇ 리조트(resort) → 휴양지
 [용례] 해안 33% 리조트 개발/편한 잠 못 자는 安眠島

◇ 리프트(lift) → ① 승강기 ② 편승
 [용례] 지하철 리프트에서 다친 장애인에 지하철 공사 500만 원 지급

◇ 윈윈 전략(win-win 戰略) → 상생 전략(相生戰略)
 [용례] 노사 문제 '윈윈 전략'으로 풀어라.

◇ 찬스(chance) → 기회
 [용례] 한국에 投資할 찬스

◇ 펀드 매니저(fund manager) → 투자(금) 관리자
 [용례] 주식 편입 비중 낮추자 주가 급등/펀드 매니저 '냉가슴'

◇ 프리포즈(propose) → ① 제안(提案)
 ② 청혼(請婚)

[용례] 조성민 씨가 작년 프리포즈

◇ 핫 라인(hot line) → ① (비상) 직통 전화
 ② 직통 회선

[용례] 南北 정상 간 핫 라인 설치 합의

<제58호> (2000. 7. 19.)

◇ 라인업(line-up) → 진용(陣容)
 [용례] 4일 애너하임 에인절스의 마이크 소샤 감독은 이를 감안, 선발 라인업에 3명의 스위치히터를 포함해 왼손 타자 7명을 집중 배치했다.

◇ 스위치히터(switch-hitter) → 양손 타자

[용례] 위 용례 참조

◇ 샬러리맨(salaried man) → 봉급 생활자

[용례] 엘리트 샬러리맨은 여교사를 좋아한다?

◇ 스톡 옵션(stock option) → 주식 매입 선택권

[용례] 이들은 출연료를 스톡 옵션으로 받는다.

◇ 인스턴트 식품(instant 食品) → 즉석 식품

[용례] “육류—인스턴트 식품 적게 드세요.”

◇ 키친타월(kitchin towel) → 종이 행주

[용례] 유한킴벌리는 최근 화장실용 화장지를 비롯해 미용 화장지, 키친타월, 종이 냅킨 등 화장지류 전 품목에 대해 ‘HS(위생 안전 품질 인증 마크)’를 국가 공인 시험 기관인 한국 생활용품 시험연구원에서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제59호> (2000. 7. 26.)

◇ 노하우(know-how) → ① 비법 ② 비결(秘訣) ③ 기술

[용례] 남(회사)의 돈과 노하우로 근사한 식당 사업을 하고 있는 샘

◇ 패밀리 레스토랑(family 프restaurant) → 가족 식당

[용례]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외식 서비스업은 겉보기엔 화려할지 모르지만 하루 8~9시간을 서서….

<제60호> (2000. 8. 2.)

◇ 룰(rule) → 규칙

[용례] 노도 사도 ‘룰’ 없는 ‘뇌사 조직’

◇ 서머렐리(summer rally) → 여름 특수

[용례] 여름철로 접어든 미 증시가 낙관적인 분위기에 힘써 여름 전통적인 ‘서머렐리(summer rally)’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 올스톱(all stop) → 전면 중단

[용례] 백혈병 환자들 골수 이식 올스톱

◇ 칼럼(column) → ① 시사 평론 ② 시평 ③ 기고란

[용례] 재미 교포 클라라 오(26, 한국명 오선아)가 최근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의 인터넷판 ‘건강 샐러드’라는 온라인 고정 칼럼을 맡아 화제다.

◇ 칼럼니스트(columnist) → ① 시사 평론가 ② 특별 기고자

[용례] 전 백악관 최고참 기자 헬렌 토머스 칼럼니스트 변신

<제61호> (2000. 8. 16.)

◇ 메이킹 필름(making film) → ① 제작편 ② 낙수(落穗)편

[용례] 미인 홈페이지에서는 아슬아슬한 수위의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예고편과 메이킹 필름(촬영 과정과 에피소드 등을 담은 필름), 뮤직 비디오가 올려져 있다.

◇ 커트되다(cut-) → ① 삭제되다 ② 잘리다

[용례] 예고편은 물론 메이킹 필름(촬영 과정과 에피소드 등이 포함)과 커트된 장면을 볼 수도 있다.

◇ 무비 트레일러(movie trailer) → 예고편

[용례] 영화 정보 검색은 물론 무비 트레일러(예고편)과 사진, 영화 음악 등의 감상과 다운로드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 클리닝 타임(cleaning time) → 정리 시간

[용례] 삼성은 올 시즌 5회가 끝난 후 클리닝 타임 때 팬들의 불거리를 위해 치어리더 등을 동원해 퍼포먼스 등 각종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제62호> (2000. 8. 23.)

◇ 클래스(class) → ① (등)급 ② 부류 ③ 반(班)

[용례] 출전 차량은 경주용으로 등록된 투어링카로 배기량에 따라 2개 클래스로 구분된다. 국제 클래스에는 호주 일본 말레이시아에서 3개 팀이 출전한다.

◇ 로드 쇼(road show) → 길거리쇼

[용례] ‘제주 가면 축제’ 기간에는 외국 자매 도시 및 8도 가면이 모여 펼치는 가면 퍼레이드와 로드 쇼, 사이버 및 요괴 가면 등 다양한 가면

이 선보이고 ...

◇ 아카데미하다(academic--) → 학구적이다

[용례] 미국에서 가장 아카데미한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대니얼 패트릭 모이니헌(73) 상원 의원(민주당)의 일생을 다룬 전기가 출간됐다.

◇ 오프닝(opening) → 개막 (공연)

[용례] 지난번 '2000 브릿 어워드' 무대에서는 메이와 테일러가 파이프와 함께 오프닝을 맡았고, 이 날 파이프는 '베스트 팝 액트(Best Pop Act)' 상을 받았다.

◇ 섹스 스캔들(sex scandal) → 성 추문

[용례]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섹스 스캔들에 휘말렸을 때에는 "르윈스키와의 관계에 대해 위증했다면 그것만으로도 클린턴은 탄핵 대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했다.

<제63호> (2000. 9. 6.)

◇ 북마크(bookmark) → 바로 찾기

[용례] 인터넷을 할 줄 아는 사람 중에 '북마크'(bookmark) 기능을 써 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 싱어송라이터(←singer and song writer) → 작곡가 겸 가수

[용례] 싱어송라이터 예민의 음악도 이 작품의 자랑거리다.

◇ 컴백(comeback) → 복귀

[용례] 공교롭게도 서태지 컴백 앨범 타이틀곡의 제목은 '울트라맨이야'다.

◇ 플래티넘(platinum) → 백만 장 판매

[용례] 백인 래퍼 에미넴이 혜성같이 나타나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더니 이번에는 흑인 래퍼 넬리도 앨범 차트 1위에 오르며 플래티넘을 기록했다.

◇ 스탠딩(standing) 삼진 → 장승 삼진

[용례] 로마이어는 2차전에서도 2회 볼카운트 2-3에서 스탠딩 삼진을 당한 후 헬멧을 3루 측 더그아웃 옆 벤치에 내동댕이쳤다.

◇ 릴레이 골(relay goal) → 연속골

[용례] 1차 평가전에서 전반 김도훈의 동점 골과 ‘밀레니엄 스타’ 이천수의 연속 골, 후반 김도균 최태욱의 릴레이 골을 묶어 5-1 대역전승을 거뒀다.

◇ 마크맨(markman) → (전담) 수비수

[용례] 미드필더였던 박지성을 윙백으로 옮겨 전담 마크맨으로 세웠고 결과는 대성공

<제64호> (2000. 9. 14.)

◇ 아이싱(icing) → 얼음찜질

[용례] 박찬호(27)에 대한 취재진의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4일 (이하 한국 시간) 15승을 거둔 박찬호는 경기 후 아이싱만 마치고는 샤워도 미룬 채 인터뷰에 응했다.

◇ 윈윈 전략(win-win 戰略) → ① 상생(相生) 전략
② 상승(相勝) 전략

[용례] 용례 생략

◇ 모던하다(modern--) → 현대적이다

[용례] 올 추석빔 생활 한복 어때요? 화려하게...모던하게...

◇ 엠앤드에이(M&A) → 인수 합병

[용례] 국제, 신동아, 대한화재 등 중소형 손해 보험사들이 M&A(인수·합병)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주가도 침체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 토털 서비스(total service) → 종합 서비스

[용례] 인터넷을 통한 ‘차량 토털 서비스’ 시장에 대기업들이 잇따라 진출하면서 기존 중소기업체와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 오일 쇼크(oil shock) → ① 유가 파동 ② 유류 파동

[용례] 끝없는 高유가 ‘3차 오일 쇼크’ 오나.

◇ 아웃사이더(outsider) → ① 국외자(局外者)
② 배돌이 ③ 겉돌이

[용례] 최근 스스로를 아웃사이더로 지칭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아웃사이더란 글자 그대로 국외자(局外者) 혹은 열외자(列外者)라

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어느 사회나 집단에서 원만하게 아무런 탈 없이 지낼 수 없는 소위 문제어이다.

◇ 스코어링 포지션(scoring position) → 득점권 위치

[용례] 이 기자는 특히 스코어링 포지션에서의 피안타율 1위(0.144), 종합 피안타율 2위(0.212), 다승 4위, 탈삼진 6위, 방어율 7위 등 구체적인 기록을 열거하며 박찬호가 최고 투수로서 손색이 없다고 강조했다.

11. 제34차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공동위원회 결정 사항
(2000. 7. 28.)

일반 용어

아나노바	Ananova	사이버 뉴스캐스터
애버리지니	Aborigine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20세기 초까지 수렵 생활을 해 왔음.
올리가키	oligarchy	*oligarkhia(그리스어) → oligarch, -y 과두 정치, 과두 지배 세력
히브리	'bry	~ 語, 민족

인 명

기욤, 질베르	Gilbert Guillaume 1930~	국제사법재판소(ICJ)소장, 프랑스인
니엔, 구엔 디	Nguyen Dy Nien	베트남 외무장관, 전 외무차관
덴크타시, 라우프	Rauf Denktash 1924~	北키프로스 터키 공화국 대통령, 터키계주민자치체 수석대표, 키프로스 공화국 부통령, 키프로스연방 터키계주민 공화국 대통령, 95년 4월 4선

라게브, 알리 아부	Ali Abu Ragheb	요르단 총리, 전 산업무역, 에너지, 광물자원 장관. 팔레스타인인 실업가
라디시치, 지브코	Zivko Radisic 1937~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간부회의장(국가원수), 세르비아인을 대표한 간부회원으로, 3명이 8개월씩 윤번제로 간부회의장이 됨. 세르비아 공화국 사회당 당수
래지오, 릭	Rick A. Lazio 1957~	미국 하원의원, 뉴욕주 상원의원 선거 공화당 후보로 힐러리 클린턴과 대결
레타, 엔리코	Enrico Letta 1965~	이탈리아 공업·통상 장관, 대북 투자 협력과 산업교류 방안 모색 위해 7월 19일 내한. 최연소 장관
롤링, 조앤 캐슬린	Joanne Kathleen Rowling 1965~	영국 여류작가, “해리 포터(Harry Potter)”시리즈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리, 지넷	Jeanette Lee 1970~	미국 여자 프로 당구선수, 한국계 미국인
마골리스, 신디	Cindy Margolis 1968~	미국 여자 배우, ‘인터넷 여왕’
마들, 페렌츠	Ferenc Madl 1930~	헝가리 대통령, 전 부다페스트 대학 교수
메히아, 이폴리토	Hipolito Mejia 1941~	도미니카 공화국 대통령, 전 농림장관, 야당 도미니카 혁명당(중도좌파)의 신인
모랄레스 (베르무데스 세루티), 프란시스코	Francisco Morales Bermudez Cerrutti 1921~	페루 퇴역군인 전 대통령, 육군 대장
미네타, 노먼	Norman Mineta 1931~	미국 상무장관, 전 하원의원, 새너제이 시장. 일계 미국인

밀케, 에리히	Erich Mielke 1907~2000	구 동독 보안장관, 내무장관을 거쳐 비밀 경찰 국가보안부(슈타지)를 지휘
바샤르, 알아사드	Bashar al-Assad 1965~	시리아 대통령, 바트당 서기장, 군최고사령관. 고 아사드 대통령의 2남
바우처, 리처드	Richard A. Boucher 1951~	미국 국무부 차관보(홍보담당) 겸 수석보도관(대변인), 전 키프로스 주재 대사. 제임스 베이커, 로렌스 이글버거, 워런 크리스토퍼 등 국무장관 대변인 역임
베사드, 자크	Jacques Beyssade 1961~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CK) 회장, 프랑스 은행 크레디 리오네(Credit Lyonnais)한국 지사장 겸무. 프랑스인
백스트롬, 우르반	Urban Backstrom	국제결제은행(BIS)총재, 스웨덴인
벤티, 크레이그	Craig Venter 1946~	미국 셀레라 지노믹스(Celera Genomics)회장 겸 수석연구원
사파테로,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Jose Luis Rodriguez Zapatero 1950~	스페인 사회노동당(PSOE)당수, 국회의원
샘프러스, 피트	Pete Sampras 1971~	미국 테니스 선수
셰창팅	謝長廷 1945~	대만 민진당 (여당 민주진보당) 주석, 전 가오슝(高雄)시장
쑹추위	宋楚瑜 1942~	대만 친민당 주석 전 대만 성장(省長)
아파나시예프, 예브게니	Evgeni V. Afanasiev	주한 러시아 대사

엘라비치, 안테	Ante Jelavic 1963~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간부회 의장(국가원수), 크로아티아인을 대표한 간부회원으로, 3명이 8 개월씩 윤번제로 간부회의장이 됨. 크로아티아 민주동맹 당수
오티, 멀린	Merlene Ottey 1959~	자메이카 여자 육상 단거리 선수
윌리엄스, 비너스	Venus Williams 1980~	미국 여자 테니스 선수 S. Williams와 자매 사이
윌리엄스, 세리나	Serena Williams 1981~	미국 여자 테니스 선수 V. Williams는 언니
이사레스쿠, 무구르	Mugur Isarescu 1949~	루마니아 총리, 전 루마니아 중 앙은행 총재, 경제학박사
일로일로, 라투 조세 파	Ratu Josefa Iloilo	피지 대통령
장형	江綿恒 1952~	중국 사회과학원 부원장, 장쩌 민(江澤民) 국가주석의 장남
장후이메이	張惠妹 1972~	대만 여가수, 애칭“아메이”
체니, 리처드=딕	Richard=Dick=Ch eney 1941~	미국 정치가, 공화당 부통령 후 보, 전 국방장관, 대통령 수석 보좌관, 6선 하원의원, 현재 석 유 관련 기업 핼리버튼 CEO
치머, 가브리엘레	Gabriele Zimmer 1955~	독일 민주사회당(PDS) 당수, 전 부당수, 여성
카라세, 라이세니아	Laisenia Qarase	피지 총리, 전 은행가
카루비, 메디	Mehdi Karrubi 1936~	이란 국회의장, 전 국회의장 (1989~92)
콜린스, 프랜시스	Francis Collins 1950~	미국 국립인간게놈연구소 (NHGRI) 소장 겸 인간게놈 프로젝트(HGP) 수석연구원

텐충밍	田聰明 1942~	중국 新華社 사장, 전 국가방송·영화·텔레비전 총국장
토머스, 헬렌	Helen Thomas 1920~	미국 허스트계 신문 칼럼니스트, UPI 통신의 여류 기자로 40년간 백악관에서 역대 미국 대통령을 취재했으며, UPI가 統一教 미디어에 매입된 뒤 57년간 근무한 직장을 물러났음.
파를리, 플로랑스	Florence Parly 1963~	프랑스 예산 담당 각외상 전 조스팽 총리의 예산 담당 자문관, 최연소 여성 장관
폭스, 케사다, 비센테	Vicente Fox Quesada 1942 ~	멕시코 대통령, 전 과나후아토 주지사, 중도우파 야당 국민행동당 (PAN)
한스 아담 2세	Hans AdamII 1945~	리히텐슈타인(公國)원수

지 명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	Turkish Republic of Northern Cyprus	키프로스 섬 북동부 3,355Km ² 지역, 인구 20만
과절레인	Kwajalein (Atoll)	서태평양 마셜 제도의 환초도. 미국 미사일 실험장. 7월 8일 요격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했음.

일본 모리 2차 내각 (2000. 7. 4)

총리 / 모리 요시로	森 喜朗 1937~	문부상, 통산상, 당총무회장·간사장. 중의원 (유임)
법무 / 야스오카 오키하루	保 岡 興 治 1938~	변호사, 건설위원장, 당사법제도 조사회장. 중의원
외무 / 고노 헤이	河 野 洋 平 1936~	자민당총재, 외무상. 중의원 (유임)

- 대장 / 미야자와 기 宮澤喜一 1919~ 이치 관방장관, 부총리·장상, 총리. 중의원 (유임)
- 문부 과학기술 / 오 大島理森 1946~ 시마 다다모리 관방부장관, 환경청장관. 중의원
- 후생 / 쓰시마 유지 津島雄二 1929~ 후생상, 당정조직장대리. 중의원
- 농림수산 / 다니 요 谷 洋一 1926~ 이치 홋카이도·오키나와 개발청장관. 중의원
- 통산 / 히라누마 다 平沼赳夫 1939~ 케오 운수상, 당재무위원장. 중의원
- 운수 홋카이도 / 모 森田 一 1933~ 리타 하지메 운수·자치정무차관, 당총무부회장. 중의원
- 우정 / 히라바야시 平林鴻三 1930~ 고조 돗토리켄 지사, 자치정무차관. 중의원
- 노동 / 요시카와 요 吉川芳男 1931~ 시오 니가타켄 부의장, 농수위원장, 당참여정심회장. 참의원
- 건설 국토 / 오기 扇 千景 1932~ 지카게 과기정무차관, 문교위원장, 보수당당수. 참의원, 여성
- 자치 국가공안 / 西田 司 1927~ 니시다 마모루 국토청장관, 자치상. 중의원
- 관방 오키나와·IT 中川秀直 1943~ / 나카가와 히데나오 닛케이신문 기자, 과기청장관, 당간사장대리. 중의원
- 금융재생 / 구제 기 久世公堯 1928~ 미타카 자치성심의원, 상공위원장, 당정조부회장. 참의원
- 총무 / 쓰즈키 구니 續 訓弘 1930~ 히로 도쿄도부지사, 법무·외교방위위원장. 참의원 (유임)
- 방위 / 도라시마 가 虎島和夫 1927~ 즈오 결산위원장, 당부간사장, 정조부회장. 중의원
- 경제기획 / 사카이 堺屋太一 1935~ 야 다이치 작가, 평론가. 민간인 (유임)
- 환경 / 가와구치 요 川口順子 1940~ 리코 주미공사, 통산성관방심의원, 산토리상무. 민간인, 여성
- 법제국장관 / 쓰노 津野 修 1939~ 오사무 내각법제차장 (유임)

새국어생활 편집위원회 규정 및 논문 투고·심사 규정

◇ 『새국어생활』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국어생활』 편집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편집위원회는 당연직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장은 국립국어연구원장이 당연직으로 맡는다.

③기타 당연직 편집위원은 국립국어연구원의 어문규범연구부장, 어문실태연구부장, 어문자료연구부장이며 편집과 출판은 국어연구원의 담당 연구원이 맡는다.

제3조(구성 절차) 편집위원은 당연직 편집위원의 제청으로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자격) 편집위원은 해당 학문 분야에 대해 연구 업적이 충실하고 연구활동이 활발한 사람으로 하며, 대학의 부교수급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임무)

- ①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편집과 논문 심사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논문 심사의 절차와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 ②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책임진다.

제6조(소집)

- ①편집위원회 정기회의는 학회지 발간 50일 전에 연다.
- ②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 회의를 열 수 있다.

◇ 『새국어생활』 투고 논문 심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연구원의 기관지 『새국어생활』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 대상)

- ①심사는 원칙적으로 접수된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 ②고정란의 원고는 국어연구원이 원고를 청탁한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하지 않는다. 단, 심사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할 수 있다.

제3조(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각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공자 2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제4조(논문 심사 의뢰) 편집위원회는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제5조(심사 기간)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의 경우 21일 이내에, 재심의 경우 14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

- ① 논문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위원은 심사 의견서에 명시된 각 평가 항목에 대해 정해진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하고 이를 심사 의견서에 기재한다.
- ②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 논문에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등급 중 하나를 부여하고 이를 심사 의견서에 기재한다. 단, 심사위원 중 한 사람이라도 게재 불가 판정이 있는 경우는 게재를 하지 않는다.
- ③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정할 경우, 심사 의견서에 수정 및 보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④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학회지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정할 경우, 심사 의견서에 게재 불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⑤ ‘게재,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그 결과만 통보하고,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 지시’ 사항을 함께 통보한다.
- ⑥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이 재투고되었을 때에는 수정 지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이 재투고 되었을 때에는 재심사에 붙인다.

제7조(게재 여부 결정)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의 처리가 완료된 후, 심사위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게재 여부 통보) 편집위원회는 게재 여부 결정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필자에게 통보한다.

제9조(기타)

- ① 논문 심사를 의뢰할 때는 필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 ② 논문 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③ 논문 심사 의견서의 양식은 별도로 규정한다.
- ④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 〈새국어생활〉 논문 투고 규정

1. 〈새국어생활〉의 간행
국립국어연구원 기관지 〈새국어생활〉은 1년에 4회 간행한다.
분기별로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자로 간행한다.
2. 원고 마감
각 호의 원고마감은 발간일 두 달 전에 원고를 제출해야 한다.
마감일 이후에 접수되는 원고는 다음 호로 넘긴다.
3. 원고는 '훈글'(hwp파일)로 작성하여 출력지 1부와 디스켓을 제출하되 담당자 전자우편을 이용할 수 있다. 심사에서 탈락된 원고는 되돌려 주지 않는다.
4. 반드시 원고의 첫 면 상단에 영문 필자명 및 영문 제목을 적어서 제출한다.
5. 본문의 앞에 국문 초록을 250자~400자 분량으로 넣으며, 목차는 붙이지 않는다.
6.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로 계산하여 60매가 넘지 않도록 한다.
7. 내용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쓴다.
8. 새국어생활에 실리는 원고는 사이버 출판을 허락해 주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어연구원 홈페이지에서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9. 원고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쓰되, 마지 못하여 한자나 외국어를 써야 할 때는 괄호 속에 넣는다.
10. 참고 문헌은 필자 이름, 발행 연도, 논문 이름, 책 이름, 출판사(소제지 포함) 등의 순서로 밝힌다.
(예) 이기문(1968). 「국어의 형성」. 『國語史 概說』. 서울:탑출판사. 1994.
11. 글 속의 번호 체계는 다음 중의 한 체계로 한다.

I. 로마자	1.
1. (아라비아 숫자)	1.1.
(1)	1.1.1.

책 반 음 표

책 이 름 : 새국어생활 제10권 제3호

절

부 수 : 부

위와 같이 받았음

200 . . .

취

받 은 이 :

주 소 :

소 속 :

직위·직급 :

선

※ 보낼 곳

157-857

서울시 강서구 방화3동 827

국립국어연구원 새국어생활 담당자 앞